

팬데믹에 대한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이해와 대응 — 존 칼빈을 중심으로*

안 명 준 **

I. 서론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공포와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숨을 쉴 수도 없으며 작년처럼 자연스럽게 타인과 함께 만날 수도 또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2020년 12월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들과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이 전염병의 공포와 위협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였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인류로 하여금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 글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통찰』(서울: 세움북스, 2020)을 수정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밝힌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50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들 모두는 흑사병으로 쓰라린 고통을 당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교회 역사 속에서 흑사병으로 고난을 당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중세 교회까지 배경적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 후에 칼빈을 중심으로 이 무서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다.

II.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전염병 이해

종교개혁자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서운 역병이 창궐하였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다. 첫째는 안토니우스 역병(Antonine Plague)인데 165년 겨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 황제 때 근동 실루기아의 베르스의 군부대에서 발병하여 180년까지 15년간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둘째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251년부터 시작되어 262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로마에서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역병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¹ 당시 이방 종교는 이런 재앙의

1 이상규, “초대교회 당신의 전염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원인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들도 볼보지 않고 도피만 하였다. 반면에 기독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병을 이해하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교회는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역병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자비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고 이상규 박사는 주장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면서 치료를 도우다가 죽기까지 하였다. 이런 사랑의 실천과 희생적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²

중세 흑사병 이전에 강력한 역병이 나타났는데 541년 처음 발병하여 750년까지 방대한 지역에 걸쳐 창궐했다. 비잔티움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Procopius, c.500~c.570)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역병은 541년 여름 나일강 삼각주 동부에 위치한 이집트의 항구도시 펠루시움(Pelusium)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³ 이 역병은 비잔틴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년 재위) 때 발생한 것으로 자신이 역병에 감염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역병을 일반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Justinianic Plague)이라고 부른다. 이 역병이 발생했을 당시의 성직자들 대부분은 역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대응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였다. 물론 의학적

2020), 119-120.

2 이상규,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21-125.

3 이상동, “유사 이래 최초의 팬데믹: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역사비평』 132 (2020), 98-120.

으로 원인을 찾아 약과 의사에 의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던 시기라서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 자연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역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의 징벌으로 인식하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예배행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진 속에서도 사람들은 죽었다고 한다. 이런 대응방식은 후대 중세의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 모델이 되었다.⁴

1347년부터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퍼지자 종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면에서 대응을 시도하였다. 중세 사람들은 앞선 세대의 관점처럼 흑사병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보았다. 신학적 대응 방식으로는 스콜라주의에 따라서 죄에 대한 회개로 고행과 이곳저곳을 순례하는 채찍질 고행단(falgellants)이 있었다. 이런 잘못된 공로사상에 근거한 인간의 열정에서 나온 극단적인 행위는 주술에 가까운 것이었다. 신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주권을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보상받으려는 스콜라 철학의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를 위하여 교회에서 큰 집회를 하였는데 결과는 더 나쁘게 되었다. 신앙과 일반계시 영역의 충돌로 인하여 흑사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세교회의 잘못된 신앙적 행위와는 다르게 의학 분야에서는 스트라스부르그의 독일 의학사가 칼 쥘트호프(Karl Zeit Höfe)는 1348년에서 1500년 사이의 기록 281편을 정리해 “흑사병 논고”(plague tractate,

4 강일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541년~750년): 실제 인식과 대응 영향,” 『역사와 담론』 68 (2013), 301-331.

Pestschriften)를 출판하였다.⁵ 이 글에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의 기록들이 나타난다. 그 당시 이런 의학적 진료를 통해서 흑사병을 막을 수 없었지만, 의사들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흑사병에 대한 이해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이때 벌써 흑사병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1348년 파리대학교 의학부에서 나왔다. 외과술의 발전, 병원의 새로운 역할, 공중보건을 위한 기준의 확립 등 근대 의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⁶ 앞선 세대의 이런 이성적이고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환경과 교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III.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

중세 유럽에서 역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발병하는 흑사병(black death, pest)을 가리키는 말이다. 흑사병은 1347년부터 시작하여 유럽 인구의 약 30%가 죽었고, 유럽의 사회와 종교의 구조를 붕괴시켰으며, 소외된 자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학살 그리고 집단폭력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중세 장원제가 붕괴되고 13세기 전성기에 있던 아퀴나스의 신학에 근거한 스콜라 철학과 성직자들의 권위가 무서운 전염병에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영향력을 상실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1243.

Cf. *Urkunden und Akten der Stadt Strassburg* (Strassburg, 1348).

6 박홍식, “흑사병 논고,” 『역사교육』 106 (2008), 183-210.

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큰 아픔은 바로 흑사병이었다. 처절한 죽음의 자리를 모면한 루터(Martin Luther)와 베자(T. Beze)는 흑사병(역병)에 대한 글을 썼으며, 쾅빙글리(H. Zwingli)는 1519년 9월 말에 흑사병이 발병했지만 11월 중순에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역병가를 썼다. 칼빈 또한 주변의 인물들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슬픔을 편지로 표현하였다. 취리히의 개혁가 불링거의 가문은 죽음으로 초토화되었지만 신앙으로 묵묵히 이겨내었다.

루터는 1505년, 1511-1512년, 1520년, 1527년 8월 네 차례나 흑사병을 만났다. 1505년 그의 동생 하인츠(Heinz)와 베이트(Veit)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1526년 6월 7일 첫아들을 시작으로 그는 6남매를 두었는데, 흑사병으로 고아가 된 여섯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다.⁷ 후에 한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다. 1525년 8월에서 시작하여 11월까지 브레슬라우(Breslau)에 흑사병 발생하였다. 그때 요한 헤쓰(Johann Heß, 1490-1547년)가 목회자도 흑사병을 피할 수 있는지를 루터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치명적인 역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라는 제목의 글로 답변을 하였다.⁸ 일단 루터는 죽음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

7 이상규, “유럽을 깨운 루터,” 『미래한국』 (2017.10.11).

8 Martin Luther,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To the Reverend Doctor Johann Hess, pastor at Breslau, and to his fellow-servant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1527),”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II*, ed.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119-38.

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랑으로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라고 하였다. 물론 책임과 공직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사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는 비텐베르크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강의와 설교와 장례를 담당하였다. 루터는 매우 실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주도홍 박사에 따르면, 루터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흑사병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나는 연기를 피워 독을 소독할 것인데, 이로써 공기를 깨끗이 정화한다. 2. 나는 병에 필요한 약을 전해주며, 그 약을 먹는다. 3. 나는 오염된 장소와 병든 사람들을 멀리한다. 그렇지만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나는 그에게 갈 것이며, 그를 도울 것이다.⁹

루터는 위의 의학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신앙적 대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먼저 경건한 삶을 강조하였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라고 권면하였으며, 흑사병의 전조가 있을 때 목회자의 도움을 구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장례와 매장에서 전문가 의사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별히 루터는 교회 묘지를 비텐베르크의 시 밖으로 옮기도록 제안하였다.¹⁰ 루터는 영적으로도 잘 무장된 교회의 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잘 사용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학자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쓰빙글리가 살았던 취리히에서 많은 사람과 종교개혁가들의 가족

9 주도홍, “루터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36.

10 주도홍, “루터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37.

들이 죽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그의 자녀를 포함하여 당시 취리히 인구 7,000명 가운데서 약 2,000명이 죽었다고 한다. 쾰빙글리는 짧은 휴가에서 돌아와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들에게 약을 복용시키고, 기도와 위로를 하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희생과 사랑으로 돌보았다.¹¹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조심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결국 1519년 9월에 흑사병에 걸렸다. 그렇지만 11월 중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 역병가를 쓰게 되었다.¹² 이 아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다.¹³ 이런 고난의 경험은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역병가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¹⁴ 쾰빙글리의 이 절실한 신앙고백은 오늘날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회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쾰빙글리가 1520년에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록을 거부하고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린 것도 이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¹⁵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칼빈(John Calvin)에게는 죽음의 사자인 흑사병이 그의 삶의 현장

11 Samuel Simpson, *Life of Ulrich Zwingli: The Swiss Patriot and Reformer* (New York: The Baker & Taylor Co., 1902), 84-86.

12 역병가 원문: <https://christianhistoryinstitute.org/magazine/article/black-death-in-pires-zwinglis-plague-hymn>.

13 Stephen Brett Eccher, "Huldrych Zwingli: Reformation in Conflict, Perichoresis," *The Theological Journal of Emanuel University* 15/4 (2017): 33-53.

14 박경수,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박경수 외 책임편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71.

15 조용석, "쾰빙글리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41-144.

에서 일평생 따라다녔다. 흑사병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슬픈 이별이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적 교훈을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학의 완성도를 높여 갔다. 칼빈은 생애 내내 흑사병에 포위되어 살았다. 어머니의 죽음, 그의 아내의 전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주변의 동지들의 죽음을 뼈저리게 간직하며, 스스로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일생을 살았다.

불링거(H. Bullinger)가 살았던 취리히는 몇 차례 흑사병을 마주치게 된다. 1535년, 1541년, 1549년, 1564-5년, 1569년의 일이다. 1564년에 그의 아내를 흑사병으로 잃었고, 자신은 겨우 살아남았다. 1564-1565년 사이에는 취리히의 목회자들과 결혼했던 세 딸과 사위들, 손자를 포함하여 모두 11명을 흑사병으로 잃었다. 그보다 더 오래 생존한 후손은 오직 네 명에 불과했다. 당시에 가족들은 가깝게 살았기에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은 세상의 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링거에게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신앙적 목회적 관심을 강조하였지만 위생과 의학 지식과 같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는 영적 처방을 통해서 천상의 소망을 갖게 하였다. 오직 신앙적 위로와 권면 외에는 다른 치료방안이 없었다.¹⁶

베자(Théodore de Bèze)가 살던 당시 1568-71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흑사병으로 그의 형제인 니콜라스(Nicholas)를 포함하여 인구의 1/4

16 박상봉, “불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65-178.

이 넘는 약 3,000명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아르베르크(Aarberg)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 크레스토프 뢰타르트(Christoph Lüthardt, 1530-1577) 목사는 흑사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그는 흑사병으로 죽었다.¹⁷ 베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 그리고 섭리하에 발생하는 흑사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보았다.¹⁸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여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페스트 대응책으로 제네바 대학교의 교수들을 피하게 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은총으로서 이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베자는 약이나 의술과 같은 이차 수단을 사용하여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¹⁹ 그에게 흑사병은 자연발생적인 전염병이므로 그 자체가 선과 악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공동체가 부여한 임무를 우선시하라고 권면하였다. 흑사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한다.²⁰

역병은 15세기와 16세기의 유럽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저승사자로

17 Anton von Tillier, *Geschichte des eidgenössischen Freistaates Bern von seinem Ursprunge bis zu seinem Untergange im Jahr 1798*. Bände 1-2 (Bern: C. Fischer, 1838).

18 Cf. Théodore de Bèze, *A learned treatise of the plague: wherein the two questions: whether the plague be infectious or no, and, whether, and how farr it may be shunned of Christians, by going aside? are resolved. Written in Latin by the famous Theodore Beza Vezelian* (London: Thomas Ratcliffe, 1665).

19 박경수,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81.

20 양신혜, “베자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187.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상처와 고통을 주는 폭풍과 같았다. 한 가정의 비극적 사건은 당시의 비참한 흑사병의 모습을 보여준다. 1571년 9월 프랑스 말발(Malval)이라는 지역에서는 임신한 딸이 해산을 위해 도움을 외쳤지만 가족들은 무서운 흑사병 앞에서 전혀 도울 수가 없었다.²¹ 혈육과 인권마저 파괴된 것이다. 이렇듯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역병은 인생의 폭풍과 같은 죽음의 공포였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고난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런 역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회개와 성화의 도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증진으로 승화시켰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무서운 흑사병의 공포에서도 신앙적 대응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사용한 이성적 대응도 하였다.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교회와 사회가 안전해지도록 자신들의 사명감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청결한 도심, 좋은 환경의 학교와 의료기관, 구제봉사 기관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전염병은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의 대응은 인류 사회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이런 흑사병의 값비싼 희생으로 얻은 새로운 지식들이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자연의 영역에서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21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16.

IV. 흑사병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이해와 대응

칼빈 당시 무서운 역병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심지어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대성당의 북쪽 탑에 ‘자비’(La Clémence)라는 이름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의 주춧돌 옆에 새겨진 비문은 종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소환하며, 성직자를 소집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역병을 쫓아 버리고, 축제일들을 제정합니다. 나의 소리는 모든 악마의 공포를 물리칩니다.”²² 이처럼 유럽의 문화적 유산에도 흑사병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1. 역병과 칼빈의 삶

칼빈은 유럽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던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다. 그가 처음으로 역병과 대면한 사건은 자신을 낳아 키우신 어머니 잔 르 프랑(Jeanne Le Franc)가 6살 때 역병으로 돌아가신 일이었다. 칼빈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역병의 공포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이 역병의 공포는 그가 어디를 가든 평생 그를 압박했다. 칼빈이 14살이 되던 해인 1523년 그의 고향에도 흑사병이 퍼졌다. 그해 8월에 그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érard Cauvin)은 칼빈의 안전을 위해 교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문을 마치도록 몽마르 가문의 형제들과 함께 파리 마르슈 학교에 입학하게 했다. 1533년 8월 칼빈은 성직을 유지

22 윌리엄 몬터, 『칼빈의 제네바』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1967), 34-5.

하기 위해 고향 누아용(Noyon)에 잠시 머물렀는데, 가톨릭 교회당에서 열린 역병의 저지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²³

칼빈은 1536년 8월 1일 『기독교강요』 서문에 붙인 프란시스 1세 헌정사에서 역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역병을 죄와 인간의 부패된 관습에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1538년 부활절에 칼빈이 파렐과 함께 불경건한 자들의 성례식 불참을 주장하자 시의회는 그들을 제네바에서 추방하였고, 그들은 마르틴 부처가 목회하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가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며 결혼도 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게 되어 충격적인 슬픔을 맛보았다. 이 도시에서의 추억은 칼빈에게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 도전과 극복의 과제를 주었다. 1538년 칼빈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세 명의 죽음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코로도(Courauld)와 사촌이자 개혁동지인 피에르 보베르 올리베탕(Pierre Robert Olivétan, 1506-1538) 그리고 파렐의 조카였다. 칼빈은 바젤에서 흑사병에 걸린 파렐의 조카의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는 돈이 부족해서 아끼는 책을 몇 권 팔았다.²⁴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칼빈의 사랑을 보여준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리제(Liege) 출신의 재세례파 장 스토르테(Jean Stordeur)라는 장인이 있었다. 그가 1540년 봄에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이델레트 드 뷔레(Idelette de Bure)와 두 명의 아이(Charles, Judith)를 남겼다. 칼빈은 파렐(Guillaume Farel)의 주례로 1540년 8월 6일에 몇 살 연상인 이델레트와 결혼식을 올렸는

23 Herman J. Selderhuis,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VP, 2009), 25.

24 임경근, “역사이야기(106): 행복한 스트라스부르 생활,” 『고신뉴스』 (2016.12.28).

데, 결혼식 후 2주 만에 둘 다 몹시 아팠다. 그들의 결혼에서 즐거움은 금세 사라졌다. 1541년 4월에 황제가 소집한 회의 때문에 칼빈은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 있었는데, 역병이 스트라스부르로 무섭게 퍼져 많은 지인이 죽었다. 칼빈이 사랑하는 친구 클로드 페라이와 베드로 투스, 하숙생 가운데 하나로 클로드의 제자인 루이스 드 리셔부르 그리고 외콜람파디우스와 쾰빙글리의 아들 그리고 카스파 헤디오의 아들이 숨졌다.²⁵ 심지어 칼빈은 자신의 가족 중 두 사람이 역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여파로 그의 아내 이텔레트는 집을 떠나야 했다. 1541년 4월 2일에 피에르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깊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자신의 걱정을 토로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인에 대한 염려로 밤낮을 지냅니다.”²⁶ 아내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칼빈은 흑사병의 여파로 고통의 날을 보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는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에 선한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의도하셨다고 말했다.²⁷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위로했다.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말 두 마리가 끈 마차와 전령의 보호 속에서 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가 받은 사례는 시의회로부터 매달 500 플로린의 월급, 열두 부대의 밀, 포도주 두 통이었다.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배려한 것이었다.²⁸ 16세기 칼빈이 살았던 당시 제네바는 부유한 귀족층이 사는 지역을 제외하면 가난하고 검

25 장수민, 『개혁교회창시자 존 칼빈: 신학과 목회』(서울: 칼빈아카데미, 2008), 516.

26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칼빈』(서울: 대성, 2009), 237.

27 셀더르하위스, 『칼빈』, 350.

28 임경근, “역사이야기(108): 제네바의 종교개혁,” 『고신뉴스』(2017.01.19.).

소한 도시였고, 일반 평민들이 사는 밀집 지대는 신선한 공기와 생활공간이 적었다. 이런 주거 환경 때문에 역병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 1542년 10월 흑사병이 퍼지자 피에르 블랑셰(Pierre Blanche)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는 33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다. 그러자 루이 드 제니스톤(Louis de Geniston) 목사가 앞서 역병으로 삶을 마감한 피에르 블랑셰의 본을 따라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던 중 1545년에 역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역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1546년 칼빈도 심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후에 돈을 갚았다. 칼빈은 자신의 집에서 많은 피난민을 돌보았는데, 1549년 3월 29일 그의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²⁹ 흑사병은 1563년 영국에서 집단 발생해 80,000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칼빈이 죽기 바로 전에 흑사병이 인구 16,000명의 제네바에 닥쳤다. 칼빈이 1564년 5월 27일에 죽은 후 1568년부터 이 질병은 다시 시작되어 1571년까지 지속되었다. 흑사병으로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모두 면직되어서 칼빈의 후계자 베자가 매우 슬퍼하기도 했다. 베자의 삼촌이자 파리 고등법원에 일했던 니콜라스 베자는 파리로부터 피해 베자에게 왔지만, 자신의 집에서 죽었다.³⁰

29 허순길, 『세계교회역사이야기, 제2부 교회개혁사: 어둠 후에 빛』(광주: 샘페르 레포트 만다, 2014), 241.

30 양신혜, 『베자: 교회를 위해 길 위에 서다』(서울: 익투스, 2020), 212.

2. 역병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대응방식

칼빈은 흑사병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먼저 그는 인간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다. 그 다음, 현실 삶에서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 흑사병에 대응하였다. 칼빈은 특별히 역병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심판을 두 가지 종류로 설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과 죄에 대해서는 진노와 심판으로써 역병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해 교정적 징계를 한다고 보았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일어나는 정화훈련의 과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써 모든 죄인이 일평생 이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천사를 통해서 돌보신다.³¹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생각해야 한다.³² 칼빈은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한다. 언제나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이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역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칼빈은 슬픔을 당한

31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Eerdmans, 1949), 시편 32:4 주석.

3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16.9. 이후로는 Inst. 로 표기함.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은 모든 종교개혁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역병으로 인한 슬픔과 죽음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극복된다고 말했다.

첫째,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역병을 하나님의 심판(judgment)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와 겸비를 통하여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발병한 역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재앙이 왜 발생했는가에 관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역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지는 보복의 심판이라고 말했고,³³ 재앙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저주이며 복수라고 표현하였다.³⁴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교정과 책망하신다고 말했다. 칼빈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을 벌하실 때도, 그를 교정할 목적으로 전염병을 보냈다고 했다(삼상 24:15). 다윗을 심한 채찍으로 냉혹하게 징계하여, 모든 시대에 본을 보이며 겸비하게 만드신 것이다.³⁵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으로 벌하시는 목적으로 보았다. 칼빈의 시대에 역병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헤르만 셀더하위스의 이해는 매우 흥미롭다. 가톨릭은 우상숭배와 미신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개혁파는

33 Inst. III.3.34.

34 Inst. I.16.5.

35 Inst. III.4.35.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진리로 충분히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은 불신 때문에, 다른 쪽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징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누구도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⁶ 칼빈은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질병으로 훈련받게 하셨으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했다. 실제로 칼빈은 다른 사람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도 자신의 죄로 받아드리면서 회개했다. 1542년 7월 28일에 태어난 자신의 어린 아들 자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말했다. 역병에 대하여 칼빈은 크리스토퍼의 주장처럼 경고와 겸손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관대하게 대한다.³⁷

둘째, 역병에 대한 칼빈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본 종말론적 관점이다. 그는 역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과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었다. 칼빈은 자신의 친구, 자녀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비통함 속에서 울면서 슬퍼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죽음에 대한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슬픔으로 압도당하지 않게 잠시도 쉬지 않고 할 일을 했다.³⁸ 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36 셀더르하위스, 『칼빈』, 195-6.

37 Inst. III. 4.35.

38 헤르만 셀더하위스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122.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고 유익하게 이해한다고 말했다.³⁹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전염병을 방어하는 데 동기가 되었다. 그것은 사랑으로 보살피는 기독교인들의 의무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 다르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했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부모님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린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나님이 주신 구조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게으르고 태만하여 스스로 재난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라고 권했다.⁴⁰ 우리가 무모함과 자만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된 소망과 신뢰와 용기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⁴¹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했고,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왔다. 칼빈이 바젤에 잠시 머무는 동안 파렐의 한 친척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자기 돈으로 간병을 하고 그가 죽자 장례비용을 대주기도 했다. 칼빈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슬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극복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서 현

39 Inst. I.17.2.

40 Inst. I.17.3-5.

41 Inst. I.17.9.

재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았다. 1347년부터 시작된 흑사병은 3년 동안 유럽 인구의 30%를 사라지게 했으며, 그 후 칼빈의 시대에도 여러 차례 몰아쳤다. 당시 흑사병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였으며, 일상이었다. 칼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과 죽음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칼빈은 나약한 인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다. 칼빈은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이며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하며, 소망과 믿음을 밀접한 관계로 설명했다.⁴² 소망은 친구처럼 믿음에 힘을 주어 격려하며, 소망의 격려를 받은 믿음은 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 흑사병은 죽은 자들에게는 원치 않는 이별이었지만, 생존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존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주었다. 칼빈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충만한 삶으로 즐거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⁴³

셋째로, 칼빈은 병든 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정진했다. 흑사병의 공포로 삶은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병원 사역과 교육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역을 통해 칼빈의 세계관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빈도 루터처럼 병든 자를 위한 철저한 돌봄을 실천했다.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찾고 날마다 심방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의무와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

42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60).

43 셀더하위스,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123.

다. 칼빈은 프랑스 구호기금을 받아서 제네바의 종합 구빈원을 후원했다.⁴⁴ 그곳은 과부, 고아, 노인들 나그네의 안식처였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당시 제네바는 1만 명의 도시로서 시내에서 가축이 도살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주거환경이 불결했다. 역병이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치료 등 시급한 상황들이 돌출했다. 1542년부터 지속적으로 피난민이 증가해 사회적으로 의료시설의 확장 및 봉사가 필요했다. 이때 칼빈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사들의 급료를 제네바시가 담당하게 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만이 아닌 교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성곽 서편에 구빈원을 따로 운영하여 치료하기도 했다. 칼빈은 의료서비스 사역이 지속적 업무가 되도록 제네바시와 협력해 제도화했다.⁴⁵ 이렇게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흑사병의 위협은 1558년에 공사가 시작된 제네바 대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칼빈은 1539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을 세운 독일 출신 종교개혁자 장 스침에게 조언을 듣고 그 학교를 모델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마침 그때 칼빈을 반대하던 아미 페랭이 축출되면서 이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도망가면서 남긴 부동산을 처분한 돈과 함께 칼빈이 직접 모금운동을 해 학교를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었다. 학교 부지는 레만 호수(Lac Léman)가 내려다보

44 임중구, “칼빈과 제네바교회 이야기(18): 이렇게 구제했다,” 『기독신문』 (2017.05.18).

45 심창섭, “칼빈의 종교개혁과 시민사회개혁,” 『교갱뉴스』 (2016.05.10.).

이며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경이 좋은 곳에 마련되었는데, 이는 흑사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의과대학은 한참 후에 설립되었지만, 이 학교에서 195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보베, 197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베르너 아르버, 그리고 199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피셔가 배출되었다. 오늘날 제네바 대학교의 대학병원 바이러스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로 인류를 위한 귀한 공헌을 하고 있다.

V. 결론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으며 그 전염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적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물론 흑사병이 발병한 곳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여 그들의 아픔을 감당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적 강조뿐만 아니라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의학적 지식도 사용하였다.

루터는 흑사병을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도록 촉구하면서도 이성적 방역을 강조하였다. 교회와 사회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은 도피하지 말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여 병자들을 돌보고 방역의 의무를 다할

46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교회 이야기(19): 제네바교회, 이렇게 교육했다,” 『기독신문』 (2017.05.25.).

것을 강조하였다. 또 비텐베르크 시내에 있던 공동묘지를 시내 밖으로 이동할 것을 시 당국에 제안한 것은 그의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위생적 개념 강조한 것을 보여준다. 쓰빙글리와 불링거는 무서운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픔과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삼았다. 죄성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은 역병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경고했다. 특별히 칼빈은 흑사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회개와 겸손을 강조하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서 현실 속에서 헌신과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가르쳤다. 칼빈의 모습은 오늘날 전염병이 온 세상으로 퍼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세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루터가 보여준 사회적 안전을 위한 대응책은 일반은총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베자는 좀더 이성적인 의학적 지식의 강조를 두고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와 대응들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들이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전 인류의 앞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자연생태 서식지를 무차별로 파괴하는 오만한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에 대한 존중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청직기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일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541년~750년): 실체 인식과 대응 영향.” 『역사와 담론』 68 (2013), 301-331.
- 몬터, 윌리엄. 『칼빈의 제네바』.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1967.
- 박경수.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박경수 외 책임편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박상봉. “불령거와 취리히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2020.
- 박홍식. “흑사병 논고.” 『역사교육』 106 (2008), 183-210.
- 셀더르하위스, 헤르만. 『칼빈』. 서울: 대성, 2009.
- _____.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 심창섭. “칼빈의 종교개혁과 시민사회개혁.” 『교갱뉴스』 2016.05.10.
- 안명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 양신혜. “배자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2020.
- _____. 『배자: 교회를 위해 길 위에 서다』. 서울: 엑투스, 2020.
- 이상동. “유사 이래 최초의 팬데믹: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역사비평』 132 (2020), 98-120.
- 이상규. “유럽을 깨운 루터.” 『미래한국』 2017.10.11.
- _____. “초대교회 당신의 전염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2020.
- 임경근. “역사이야기(106): 행복한 스트라스부르 생활.” 『고신뉴스』 2016.12.28.
- _____. “역사이야기(108): 제네바의 종교개혁.” 『고신뉴스』 2017.01.19.
-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교회 이야기(18): 이렇게 구제했다.” 『기독신문』(2017.05.18).
- _____. “칼빈과 제네바교회 이야기(19): 제네바교회, 이렇게 교육했다.” 『기독신문』 2017.05.25.
- 장수민. 『개혁교회창시자 존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칼빈아카데미, 2008.
- 조용석. “쯔빙글리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2020.
- 주도홍. “루터와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군포: 다함, 2020.
- 허순길. 『세계교회역사이야기, 제2부 교회개혁사: 어둠 후에 빛』. 광주: 샘페르 레포르만다, 2014.

- Bèze, Théodore de. *A learned treatise of the plague: wherein the two questions: whether the plague be infectious or no, and whether, and how farr it may be shunned of Christians, by going aside? are resolved. Written in Latin by the famous Theodore Beza Vezelian*. London: Thomas Ratcliffe, 1665.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Eerdmans, 1949.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60.
- Eccher, Stephen Brett. "Huldrych Zwingli: Reformation in Conflict, Perichoresis." *The Theological Journal of Emanuel University* 15/4(2017), 33–53.
- Luther, Martin.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To the Reverend Doctor Johann Hess, pastor at Breslau, and to his fellow-servant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1527)."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II*, ed.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119–138.
- Manetsch, Scott M.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lderhuis, Herman. J.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VP, 2009.
- Simpson, Samuel. *Life of Ulrich Zwingli: The Swiss Patriot and Reformer*. New York: The Baker & Taylor Co., 1902.
- Tillier, Anton von. *Geschichte des eidgenössischen Freistaates Bern von seinem Ursprunge bis zu seinem Untergange im Jahr 1798*. Bände 1–2. Bern: C. Fischer, 1838.

논문 요약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공포와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숨을 쉴 수도 없으며 작년처럼 자연스럽게 타인과 함께 만날 수도 또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2020년 12월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들과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이 전염병의 공포와 위협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였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인류로 하여금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50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들 모두는 흑사병으로 쓰러진 고통을 당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교회 역사 속에서 흑사병으로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중세 교회까지 배경적 이해를 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 후에 칼빈을 중심으로 이 무서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으며 신앙적 관점을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성의 활동도 강조하였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였으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헌신적 사랑의 실천을 다 하였다.

■ 주제어: 흑사병, 칼빈, 루터, 쾰빙글리, 불링거, 베자, 종교개혁자들, 팬데믹

Abstract

Reformers' Understanding and Response to the Pandemic: Focusing on John Calvin

Ahn, Myung-Jun

Pierson Theological Graduate, Pyeongtaek University

Now peoples are living in fear and shock with Corona 19. No one can breathe with safety like last year, they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meet or eat with others naturally. In December 2020,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increased day by day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The world now has the fear and threat of this epidemic that has stopped everything. The invisible virus is dominating humanity with this threat. On the positive side, these results strongly urge modern humans to coexist with the natural ecosystem. The current pandemic is similar to that of the Reformers who lived 500 years ago. All of them suffered bitterness from the Black Death. From the early church to the medieval church we will first look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of this topic. Next,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the way of responding to the Reformers who lived in a situation of sorrow and suffering due to the

epidemic that occurred in Europe in the 16th century. Later, with focusing on Calvin, I will investigate how he overcame this terrible disaster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and examine his countermeasures. The Reformers viewed the Black Death as God's judgment. They not only placed the importance on a religious perspective, but also emphasized the activity of reason using medical methods. Through hardships, they hoped for heaven through faith and did all their dedication to love for the sick.

■ Key Words: Black Death, Calvin, Luther, Zwingli, Bullinger, Beza, Reformers, Pandemic.